

한국 수의(獸醫) 발달사(4)



경기도 수의사회 부회장

이시영

조공이나 수출품으로서의 말

고려의 자주성은 원(元)이라는 북방국가의 등장과 함께 무참히 무너졌다. 개국 초에는 신라의 문물을 그대로 답습하여 한민족의 고유문화를 이루어 가는 듯 하다가 원의 속국이 되면서 모든 문물제도가 원나라의 영향을 받게 되어 어느 것이 진정한 한민족의 문화인가를 구별할 수가 없다. 사실상 고려시대부터 한반도의 영역이 정해졌고, 한민족에 의한 단일민족 국가로서 민족문화의 정착기라 할 수 있는 시기에 원의 풍습과 제도가 고스란히 유입되었다. 조선은 이러한 고려를 멸망시키고 나라를 세우므로 처음에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으나 원을 물리치고 명(明)이라는 새로운 상전을 모시는 입장이고 보니 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고려말부터 불어닥친 원나라의 제도를 거세하려는 강력한 움직임 속에서 태어난 조선으로서는 여러 가

지가 어려웠던 시기이기도 했을 것이다. 과거 보다는 중국과 교통이 잦으며 문물을 받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좋았다. 또한 중국의 지시라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였던 당시의 상황에서 말의 운명도 말과 관련된 각종 제도도 원나라의 제도에서 명나라와 후에 태어난 청(淸)나라의 정책에 직접으로 관련을 맺게되는 시기가 조선시대일 것이다.

조선조 개국초기에는 명나라에 많은 말들을 진헌마(進獻馬)라는 이름으로 조공을 했고, 역환마(易換馬)라는 이름으로 수출품으로 보내 주게 된다. 당시로서는 말이 주요 수출품의 하나였으며 이 수출은 자의적으로 하기 보다는 중국측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고, 때로는 말이 없어서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말 값은 대개 단자, 견면포, 목화들이었으며 일부 약재도 포함되기도 하였다.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에 전쟁용 탱크를 많이 보관하게 되면 불안하게 된다. 과거 당태종이

그랬고, 수양제가 당하였기에 항상 불안하여 말들을 가져가는 정책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측은 항상 북방민족을 공략하기 위해서 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달라고 했다. 특히 탐라도에서 생산된 말이 전마로서 우수하다는 것이다. 지금 중국의 하북지방에서 생산되는 하북마나 산하마등의 체고는 제주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키가 크다. 대개 140-150cm이다. 그들이 제주말을 탐내는 것은 몽골족인 원나라가 중국대륙에서 한족을 지배하였기에 원나라가 만든 탐라국의 목장의 말들을 의도적으로 가져가려는 정책이 깔려있기도 하다. 실제로 말을 달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내 비치기도 하였다. 조선 초기 태종과 정종때 사람 정이오(鄭以吾)란 사람이 제주목장에 대해 기록한 것을 보면 "말이 새끼치는 것이 진나라의 굴(屈; 명마의 산지)에서 나는 것과 같아서 어느 주도에서 나는 것에 비길 바가 아니다."라고 한 것처럼 오늘날의 조랑말보다는 훨씬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몽골의 말들이 대개 체고가 130-135cm 정도인데 오늘날 제주마는 120cm 전후이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몽골말의 체고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역환마의 가격은 중국측에서 정했는데 중국의 마필 선정관이라 할 수 있는 수의(獸醫)와 감생(監生)들이 상등 중등 하등으로 구별해서 상등마는 오승포(五升布)로 500필, 중등은 450필, 하등은 400필로 하였다. 특히 조선조 초기 태조에서부터

세종까지 엄청난 말들이 중국으로 가게 된다. 말을 선정하기 위해 온 수의사의 횡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는가 보다.

국왕이 초청한 연회에 아프다는 핑계로 참석하지 않은 수의사에게 국왕이 직접 가서 대접을 하기도 하였으며 중국의 수의사는 국왕 앞에서 대신을 발로 차서 쓰러뜨리기까지 하였다. 이리므로 조정은 조정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원성이 잦았다. 태종 9년 사간원(司諫院)에서 시무(時務) 수개조를 올리는데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나라의 중한 것은 군비요, 군비의 중한 것은 마필이고로 주나라의 제도에는 군무에 종사하는 관리를 사병(司兵)이라 하지 않고 사마(司馬)라고 했습니다. 말이 나라의 용도에 있어서 참으로 중한지라 땅이 좁고 마필 생산도 한도가 있는데 고향제로부터 건문에 이르기까지 바친 말들이 몇 만필이나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지금 또 다시 명나라에서 마필을 구하려는 숫자가 심히 많아 관리와 정독이 한 필을 가진 자도 모조리 납품하게 하니 이리다가는 나라안에서 장차 말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 눈물뿐입니다. 당의 태종과 수의 양제가 다 이기지 못하고 돌아간 것이나 거란과 홍건적이 먼저 우리를 침범하여 먼저 망한 것은 오직 산천의 험한 것과 좋은 장수들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말이 있었던 때문입니다.

신등이 사대의 예로 말하면 바치지 아니치 못할 것이나 나라의 형편을 보면 많이

바칠 수 없는 터이고 또 오늘 가져가고 다음에 아니 달라고 할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사대의 예와 종사의 형편을 참작하여 시행하기를 업드려 비나이다." 이 글에서 보면 중국에서 구하는데 주지 않을 수 없으나 적당히 사대의 예를 지켜 가면서 종사를 생각해서 조공해야 할 말의 숫자를 줄여 가자는 것이다. 참으로 현명한 생각들인데 중국측에서는 이와 다른생각이었기에 우리 나라의 말들은 끝없이 압록강을 건너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마정의 쇠퇴를 가져오는 징조로 변하게 된다. 말을 생산해 보았자 모두가 중국에 빼앗기므로 말을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말 생산을 기피하게 된다. 특히 이 현상은 제주도에서 심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제주의 말들이 퇴화의 길을 걷게 된다.

마정(馬政)이 문란해지고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조선조에서는 마정이 문란해 지기 시작한다. 전기보다도 말 키우는 방법에 있어서도 혹은 관리하는 방법에서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다. 그중 한 예를 들면 효종의 어명을 살펴 볼 수 있다. 효종은 청나라에 볼모로 심양에서 청국의 문물을 직접 체험한 분으로서 말 타는데도 상당한 실력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임금이다. 그분이 내구마(內廐馬)와 어마(御馬)에 관해서 관리지침을 내리고 있다. "말의 됃뎡이는 살찌지

않으면 그 재능을 펼 수 없는데 다만 어구마는 아침저녁으로 별로 쓸 일이 없으므로 사복시에서는 살이 찢데다 오래 세워 두면 병이 날 것이 두려워서 말먹이를 줄여서 여위게 하는데,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이후로는 말먹이를 다 주어서 살찌고 크도록 힘을 쓰라.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목대로 따라 거행하고 변경하지 말라.

"내구의 어마와 외구(外廐)의 가교마(駕驕馬)는 봄과 가을 해가 길 때이면 한 달에 세 번 살곶이(箭串; 과거 독섬 경마장이 있던 곳인데 조선조 초기에 국마장이 있던 곳으로서 화양동이라는 이름도 사복시의 제조가 근무하던 관청의 이름인 화양정에서 따 온 것이다. 지금도 성동교에서 북쪽으로 내려다보면 야트막한 돌다리가 있는데 이것이 살곶이 다리이다)에 나아가 길을 들여서 다녀오고, 세마도 행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니, 내승(內乘) 2인과 마색관(馬色官)이 하인들을 데리고 가되 헛되이 고삐를 끌고 가지 말고 모두 타고 가게하며, 겨울과 여름에는 한 달에 두 번 그렇게 하라. 또 여름의 더운 달에는 전날 저녁에 내구의 말을 외구에 미리 내다가 재워 성문이 열리거든 시원할 때에 나가서 종일 풀을 뜯어 먹이고 저녁에 돌아와서도 외구에 재우고 이튿날 아침에 다시 그렇게 하라. 이것을 정식으로 채택해서 거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는 임금이 볼 때 얼마나 말 관리가 잘 되지 못 하였기에 친히 지시를 내렸을까.

위의 문장에서 보면 말이 살 찢 것을 두려

위하여 사료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여위게 만드는 것은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이 행하던 방법이기도 하고, 고구려에서는 어마가 살이 찌서 날뿜 것을 두려워하여 일부러 비쩍 마르게 하여 시장에 내다 팔아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평강공주가 온달을 위해서 비루먹은 말을 사 오라고 하는 대목에서 살펴보았다. 효종은 말에게 운동을 시키라고 했다. 살곳이 목장까지 갈 때에 말을 고삐로 끌고 가지 말고 타고 가라고 했다. 새마도 시키라고 했다. 궁궐 안에 있는 말을 바깥 마구간에 두어서 분위기를 바꾸어서 말에게 기분 전환도 시키라고 지시하기도 한다.

신하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조선의 말들은 압록강을 건너게 된다. 조선조 초기만해도 제주도 말은 몽골말과 같이 체구가 큰 말이 생산되었는데 후에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제주도 목장의 말들이 퇴화되어 가는 것을 역사의 기록에서 읽을 수 있다. 조정에서 키가 작아져 가는 제주도 말에 대해 논의를 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영조 14년(1738년) 사복첨정(司僕僉正) 김봉연(金奉衍)이 아뢰기를 "제주의 말은 씨가 전보다 작아져서 가교마(駕轎馬)까지도 태반은 중국의 말을 섞어 쓰니 참으로 민망합니다.

신이 과거의 기록을 살펴보니 송연규(宋延奎)가 제주목사로 있을 때 장계를 올려 중국의 말 수십필을 구입하여 제주에

방목하여 씨를 받을 것을 청하였으나 사복시의 재정이 빈곤하여 곧 시행하지 못하고 해은부원군(海恩府院君) 오명항(吳明恒)이 사복시의 제조로 있을 때 평안도에 지시하여 북방의 말을 사서 철산탄도목장에 방목하게 하였는데 이 목장은 그 뒤부터 나아졌다하였으니 보람이 있었다고 하겠습니까."

국왕도 제주말의 퇴화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그 원인이 말을 키우는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렇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조 24년에 직접 전교하기를 "마정은 나라의 중요한 일인데 더구나 이때뿐이겠는가. 전에도 이미 지적했는데 제 신하들이 아뢰는 것을 들으니 제주의 말은 아주 씨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전에 이미 들은 이야기이다.

제주는 국마의 부고인데도 이러하니 나라의 일을 피하는데 있어 방치할 수 없다. 구례를 존속시키는 도리도 없을 수 없으나 3년에 한하여 년예마(年例馬) 8필과 어승마(御乘馬) 및 삼명마(三命馬)와 세공마(歲貢馬) 산마(産馬)는 특별히 봉진(奉進)을 멈추고 새끼를 받아 불리게 하라.... 이른바 예마 8필은 곧 옛 팔준(八駿; 이태조가 타던 8두의 준마)의 뜻에 비기는 것이므로 왕년에는 몸집이 크고 탈만하여 체임마(遞任馬)보다 나았으나 이제는 몸집이 작고 재능이 없으므로 이름은 달라도 실속은 세공마와 같으니

좋은 것으로 친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감목은 이러한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토산말에서만 씨를 받으므로 갈수록 점점 더 작아져서 마침내 두엄이나 땔나무를 심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하게 되었으니 어찌 한 나라의 군사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좋은 종자를 받지 못하는 하나의 이유이다.

우리의 관원들은 망아지 거세할 줄을 모르는 것이 큰 흠이다. 우리 나라의 사대부들은 모든 일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떤 사람이 하인더러 말에게 콩을 더 주라고 하였다가 전랑(銓郎; 관리의 천거권을 가진 正郎과 左郎)에게 지탄받은 일이 있고, 근자에 한 학사가 말을 매우 좋아하여 말을 알아보는 재주가 백락과 다름없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비웃어 옛날에 난양도위(爛羊都尉)가 있었다더니 지금은 이마학사(理馬學士)가 있구나 하였다고 한다. 사대부들이 까다롭기가 이와 같았다. 나라의 큰일을 생각지 않고 그러한 일들에 관여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여 하인들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 버렸다. 비록

감목이라는 벼슬은 실직은 아니더라도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이 목마의 법을 전연 모르는 것은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배우려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관원이 망아지 거세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박지원이 본 우리 나라 마산의 잘못된 점은 사람을 잘 못 쓴다는 것과 생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사람을 잘못 쓴다는 것은 감목이나 수의사들이 망아지 거세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고, 또 말의 생산을 위해서 번식을 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어둡다는 것이다. 모두가 수의사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

생각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말을 키우는 것은 하인들이나 할 일이지 사대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주자학의 영향으로 굶은 일은 하인들에게 시키고 사대부는 책이나 읽고 민초들을 다스리는데 치중하다 보니 그때부터 내려온 잘못된 생각들이 오늘날의 관료주의나 권위주의의 모태가 되었을 것이다.

李 始永경마평론가 E mail; shiylee@chollian.net

부스틴-에스와 바디컨디션(BCS)과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바디컨디션이란 체중의 증감이 아닌 체지방의 축적정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젖소는 체지방을 이용하여 우유를 생산하는데 바디컨디션이 3.0 이상이 되면 젖소에 무리없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2.5 이하가 되면 큰 효과를 볼 수 없었으며 다음 비유기에 정상적인 상태로 도달되기 어렵고 대사성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스틴-에스를 투여할 경우 체내의 체지방 분해가 많아지므로 적정 사양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바디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목사가 된 자들이 게을러서 위에 바치는 것을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말의 퇴화는 관리들의 잘못이다

조선조 후기 실학자인 박지원은 제주말이 키가 작아진 것을 관리나 수의사의 잘못으로 탓하고 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熱河日記)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내가 태학관(太學館)밖에 매어 둔 우리나라의 말을 보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내가 일찍이 정석치(鄭石痴; 영조때의 화가인 鄭詰祚)와 우리 나라 토산말 값의 싸고 비쌈을 이야기할 때 '몇 십 년이 안가 닭 배통을 구유로 하여 배갓머리에서 말을 기르게 될 것일세' 하였더니 석치가 '그게 무슨 말인가' 해서 '계속 늦가을 병아리로 씨받이하여 가면 4-5년 후에는 배개 속에서 울게된다고 하여 이를 침계(枕鷄)라 하지 않는가. 말도 마찬가지로 말도 마찬가지일세. 종자가 작은데 점점 더 작아져서 침마(枕馬)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배개 속에서 닭우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 침마를 타고 뒷간엘 가면 아주 좋겠구만 그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말 교미시키기를 꺼리므로 말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정모(貞牡; 숫총각), 정빈(貞牝; 숫처녀)으로 있네. 지금 나라안에 수만 마리의 말이 있지만 교미를 시키지 않으니까 말이 번식하지 못하여 해마다 만 여마리의 말을 잃으니 몇 십년이 안가 침마까지도 종자가 마를 걸세' 하여 서로 웃으며 농담을 한 일이 있다."

이는 박지원이 청국 말을 보고 난 후 태학관 밖에 매어 둔 초라한 우리 나라 말을 보고 기록한 것이다. 박지원은 우리 나라에서 말 기르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말 병(病)이 많다고 하는데 "목이 마를 때에 물을 생각하는 것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생각하는 것 보다 더 간절한데 우리나라의 말은 찬물을 마시게 하는 일이 없다. 말의 성질은 익힌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싫는데 그것은 더운 것이 병이 되기 때문이다. 콩이나 여물에 소금을 뿌리는 것은 짜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하려는 것이고, 물을 마시도록 하는 것은 물을 많이 마셔서 오줌을 잘 누려고 하는 것이고, 오줌을 잘 누려고 하는 것은 몸의 열을 풀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찬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그 정강이를 튼튼하게 하고 말굽을 단단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말은 반드시 콩을 삶아서 먹이고 여물을 끓여서 먹이기 때문에 하루만 달려도 저절로 열이 나서 병이 되고 한 끼니만 죽을 걸러도 내내 허약하여져서 걸음이 느려 지는데 이것은 익힌 것을 먹이기 때문이다. 전마(戰馬)에 죽을 먹이는 것은 더욱 잘못된 일이다.

말 등에 물건을 싣는다는 것은 천하에 잘 못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레가 다니지 않으므로 물건 수송은 공사간에 오직 말 등에만 의지하는데 말의 힘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무거운 물건을 싣고자 하는 욕심으로 부득이 더운죽을 먹여서 힘을 쓰게 하기 때문에 정강이가 약하고

말굽이 연하여 한번 교미하고 나면 뒤를 못 가는다. 그래서 교미를 시키지 않으니 말은 어디서 날것인가. 이는 말을 기르는 방법이 괴이하고 먹여 기르는 방법이 옳지 못하여 그 좋은 종자를 받지 못하고 관원이 망아지 거세하는 방법이 어둡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말은 고삐를 단단히 하므로 설 때는 말이 모래에 목욕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말이 괴로움을 당한다고 한다.

말은 커야하고 작아서는 아니 된다. 튼튼해야 하고 약해서는 아니 된다. 날랜 말을 구해야 하고 우둔한 말은 구해서는 아니 된다. 무거운 짐을 실어 먼길을 가게 하려고 한다면 모르거니와 만약 무거운 짐을 실어 먼길을 가게 한다면 토산말은 단 하루도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무비(武備)와 군용(軍容)을 소홀히 한다면 모르겠거니와 무비를 갖추고 군용을 세우려면 토산말은 이리하니 단 하루도 군사 일에 쓸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은 중국과 우리와는 태평세월이니 아주 좋은 수말과 암말 수십마리를 구한다면 중국도 말 수십마리를 아끼지 않을 것이고 만일 외국이 말을 사사로이 구하여 기르는 것을 중국이 싫어한다면 해마다 드나드는 사신편에 몰래 사오게 한다면 어찌 그럴 기회가 없겠는가. 말을 구해 서울 근처 수초가 풍부한 곳에 10년만 종자를 받아서 제주도와 각 감목(監牧)에 옮겨다가 말의 종자를 갈게 하되 그 번식시키는 방법은 마땅히 주례(周禮)와 월령(月令)에 따라서 길러야 할 것이다.

주례에 말은 수컷이 1/4이 되게 한다고 하였고, 그 주석에는 그 타는 성품에 맞게 하려는 것이니 생물은 기질이 같으면 마음도 같다고 하였고, 정사농(鄭司農; 후한 명제때 명신인 鄭衆, 그의 아버지와 함께 주례를 해설하는 대사농이 되었기에 그렇게 부름)은 수컷을 1/4로 한다는 것은 암컷 셋에 수컷 하나를 두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월령에는 늦봄이면 과우(果牛; 발정기의 수소)와 등마(騰馬; 발정기의 수말)를 암컷들이 노는 목장에 내어 주기가 알맞다고 하였으며, 진혜전(秦蕙田; 청나라 건륭제 시대의 사람으로서 오례통고의 저자)은 수인(人: 말을 다루는 관원)이 수말을 편안하게 부려 너무 피로하지 않게 하는 까닭은 그 기혈(氣血)을 안정시켜 주기 위해서이고 교인(校人: 주나라때 마정담당관)이 여름에 수말을 거세하는 것은 암말이 새끼를 배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말을 거세해서 암말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을 번식시키는데 근본이 되는 것이니 이는 다 옛 임금의 때에 순응해서 생물을 길러 그 본성을 다하게 한다는 뜻이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봄이 되면 수말에게 방울을 달아 마음대로 교미하게 하는데 수놈의 주인은 한번에 은 5돈을 받고 나중 에 태어난 말이나 노새가 튼튼하고 날새면 다시 은 5돈을 받는다. 생겨난 노새나 말이 날새지 못하고 털 빛깔이 좋지 않거나 성질이 잘 길 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거세하여 그 씨를 받지 못하게 하는데 수컷은 몸집이 크고 성질이 온순한 것을